

<http://doi.org/10.52530/kpac.2026.58.3>

20세기 초 여성가사 <히도교거사> 연구

박영주*

차례

1. 들어가며
2. <히도교거사>의 구성상 특징
3. <히도교거사>의 지향
4. 나가며

| 국문초록 |

본고는 김우락(金宇洛, 1854~1933)의 <히도교거사>를 대상으로 작품의 구성 양상과 지향을 살피고, 그 문학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히도교거사>는 김우락이 자신의 성장과 혼인, 가족생활, 경술국치로 인한 만주 망명에 이르는 삶을 회고한 장편가사이다.

<히도교거사>는 망명을 기점으로 서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인물과 관계에 주목하였고, 후반부에서는 공간 이동과 사건이 중심을 이룬다. 전반부의 인물들은 김우락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된다. 김우락은 가족을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니라 예와 공경, 애정과 돌봄, 책임과 계승이 실천되는 관계의 질서로 구성한다. 특히 남편을 ‘주군’, ‘군주’, ‘성덕’을 갖춘 인물로 칭하고, 자신을 남편에게 ‘중대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점은 애정과 존경, 상호 신뢰가 결합된 부부관계를 보여준다.

김우락은 고국을 떠나는 비통함과 장거리 이동의 고통, 추위와 질병, 가족과의 이별, 척박한 정착 생활을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절망의 서사로 귀결하지 않는다. 새로운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의 환대를 기록하고, 종손의 탄생과 후손의 미래에서 위안을 발견하며, 삶을 지속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처럼 척박한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이 교차하는 구성은 망명을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다시 조직하고 이어 가는 과정으로 의미화 하는 김우락의 시선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실 인식은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실천감각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 속에서도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태도는 김우락의 삶 속에서 내면화되고 체화된 품격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히도교거사>의 문학사적 의의는 경술국치와 만주망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김우락의 생애와 시선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히도교거사>는 여성의 생애와 가족의 역사, 국가적 위기와 공동체의 지속을 하나의 서사 안에 통합하여 망명을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며 삶을 이어 가는 과정으로 형상화하였다.

핵심어 : 김우락, <히도교거사>, 여성가사, 가족 공동체, 망명

1. 들어가며

본고는 근대전환기 여성가사인 <히도교거사>¹⁾를 ‘구성’과 ‘지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우락 가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히도교거사>는 1911년 김우락(金宇洛, 1854~1933)이 만주 영춘원에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지은 총 392행의 장편가사이다.²⁾ 김우락은 1854년 안동 임하면 천전리에서 김진린(金鎭麟, 1825~ 1895)과 함양 박씨(1824~ 1877) 사이의 4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1872년 19세에 4살 연하인 석주(石洲) 이상룡(李祥龍, 1858~1932)과 혼인하여 임청각(臨淸閣)의 중부가 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하자 남편을 따라 만주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만주에서의 망명 생활과 정착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겪은 고난과 생활의 면면을 가사로 남겼다.

1) 본고는 성호경·서해란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2) 신해년 국화절의 단풍은 비단이오 / 한풍은 소슬하니 원각의 시름일죄 / 심궤하고 술안호
중 병중의 회황호여 / 와석의 혼즈누어 공부업슨 저름글노/자괴경녁 더강기록 타인불가 남
스럼소

남편 이상룡이 1932년 길림성 서란(舒蘭 소성자(小城子)에서 순국하자, 그의 시신을 만주에 안장하고 귀국길에 올라 신경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 석 달 만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귀국 후 1년 뒤인 1933년 4월 14일 생을 마쳤으며,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히도교거사>는 망명을 경계로 서사가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 망명 이전의 서사는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한 인물의 호명과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부모와 시부모, 남편, 형제, 자녀, 동서와 시누이 등을 차례로 호명하면서 혼인과 출산, 가문의 계승 과정을 함께 서술한다. 이러한 호명은 각 인물과 맺고 있는 관계의 결, 가족 내부의 질서와 위계, 그리고 화자가 공동체를 인식하는 태도까지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반면 망명 이후의 서사는 인물보다 사건과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전환된다. 안동을 떠나 신의주와 압록강을 거쳐 만주에 정착하기까지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일상적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면서 망명 이후의 현실이 보다 구체적이고 핏진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히도교거사>는 한 작품 안에 망명 이전 삶의 기반이었던 공동체의 세계와 망명 이후 새롭게 감당해야 했던 현실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고 있다.

<히도교거사>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정리와 원문 복원³⁾, 작품의 문학적 의미 규명, 작품의 배경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김윤희는 새롭게 확인된 이본을 소개하고 기존 허은본⁴⁾과 성호경본의 비교를 통해 훼손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작품의 전문을 복원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⁵⁾ 그러나 각 이본의 특징과 차이를 구체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밖에 고성 이씨 소장본을 대상으로 안동 지역어와 국어학적 특징

3) 성호경·서해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히도교거사> · <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46, 한국시가학회, 2019.

4) 김우락의 손부인 허은 여사가 소장해오다가 현재는 (사) 유교문화보존회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다.

5) 김윤희, 「만주 망명 가사 <히도교거사>의 새로운 이본(異本) 자료 소개」, 『우리文學研究』 67, 우리문학회, 2020.

을 분석하여 <히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를 밝힌 연구도 있다.⁶⁾

문학적 의미를 다룬 연구에서는 김우락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역사 인식과 자의식, 그리고 가족 공동체와의 관계가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김윤희는 남성과 여성의 역사 인식 차이에 주목 하였다. 이는 여성 작가가 개인의 생애 경험과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관점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두 작품은 서술하는 시점이 다르다. <분통가>가 경술국치와 망명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를 직접 다루고 있는 반면, <히도교거사>는 만주 정착 이후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망명 이전과 이후의 경험 등을 서술한 작품이다. 따라서 창작 목적과 서술의 지향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⁷⁾ 또한 김윤희는 김우락의 만주 망명 가사를 “공동체를 지탱해 온 문학적 실천의 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가능케 한 동인으로 ‘관계의 윤리’에 주목하였다.⁸⁾ 더 나아가 김우락의 가사에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을 유교 명분이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기 긍정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김우락의 작품 세계를 자기 성찰과 정서적 치유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히도교거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김우락과 집안 여성들 사이의 화답가에 주목한 연구였다는 점에서 <히도교거사> 연구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밖에 <히도교거사>를 중심으로 김우락의 가사를 고찰한 연구도 있다. 이는 <히도교거사>를 전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체적인 여성의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⁹⁾

<히도교거사>의 창작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에서는 만주 망

6) 정연경, 천명희, 「고성 이씨 소장 『해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 『어문논총』 68, 한국문헌언어학회, 2016.

7) 김윤희,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海島僑居辭)>와 <분통가(憤痛歌)>에 대한 비교 고찰-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와 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8) 김윤희, 「김우락의 만주망명 가사에 보이는 여성의 자의식과 관계 지향적 미학」, 『우리문학연구』 89, 우리문화회, 2026.

9) 한경희, 「김우락 가사 고찰」, 『한국지역문학연구』 11, 한국지역문화회, 2022

명가사의 담당층인 혁신유림의 성격, 안동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 그리고 안동의 지역성이 함께 논의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품이 놓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¹⁰⁾ 다만 이들 논의는 <히도교거사>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나 김우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만주망명 가사가 형성된 배경과 장소적 특징을 밝히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에 본고는 김우락의 가사 작품 중 <히도교거사>를 구성상의 특징과 지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히도교거사>의 구성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 3장에서는 이러한 구성 방식을 통해 김우락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 문학사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2. <히도교거사>의 구성상 특징

<히도교거사>의 ‘해도(海島)’는 옛 ‘발해의 땅’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환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손서(孫壻) 유시준(柳時俊)은 이상룡의 제문에서 만주를 “대씨(大氏)가 남긴 경사(京師)”라고 하여, 망명지인 간도를 발해의 역사적 공간과 연결하였다.¹¹⁾ 이는 김우락 일가의 만주 망명이 낯선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공간으로의 이

10) 이에 관한 연구는; 고순희 -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2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김운희, 「안동 사람들의 망명 애환을 담은 歌辭가사 - 김우락의 <해도교거사>, <정화가>, <간운사> 안동의 지역성을 확장하다」, 『안동학 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백순철, 「가족과 지역으로 읽는 내방가사의 독법」, 『한국시가문화연구』 54,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등이 있다.

11) 『石洲遺稿』 下,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08, 317. 가솔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북만주(北滿洲) 대씨(大氏)가 남긴 경사(京師)로 깊이 들어가 염포(鹽浦)의 흑사(黑沙) 바람과 큰 호수 비린 얼음을 건넌지 20년 풍상(風箱)에 수염과 모발이 모두 희었지만, 우리 민족이 함께 빠져죽는 데 이르지 않고 왕업(王業)이 확장되는 것을 다시 보고자 하여

동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¹²⁾ 한편 ‘교거(僑居)’는 타향에 임시로 머문다는 뜻을 지니므로¹³⁾ 김우락이 제목을 <히도교거사>로 정한 것은 만주에서의 삶을 귀환을 전제한 임시적 거처에 서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도교거사>는 경술국치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만주 망명을 기점으로 망명이전은 인물의 호명과 관계의 형성이 중심인 반면, 망명 이후에는 공간의 이동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되어 망명 이전의 삶의 기반과 망명 이후의 현실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히도교거사>의 구성상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인물과 사건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물 : 관계와 호명

<히도교거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친정과 시가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자는 각 인물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대를 결합하여 호명한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각각의 성품과 역할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화자는 서두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과 혼인 이후의 삶을 회고하며 친정과 시가의 가족을 차례로 제시한다. 먼저 친정에서의 성장과정을 회고한 뒤 시가의 가족을 차례로 호명한다. 시부모를 ‘존당(尊堂)’이라 높여 부르며, 시동생은 ‘여룡여호(如龍如虎)’, 시누이는 ‘여주여옥(如珠如玉)’으로 표현하며 남편은 ‘군자(君子), 주군(主君), 성덕 있는 사람’이라 칭하는 등 각인물의 인품과 친밀한 관계를 드러낸다. 이밖에도 동서 및 자녀에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을 차례로 호명한다.

12) “만주는 우리 단군 성조의 옛터이며, 항도친은 고구려의 國內城에서 가까운 땅이었음에 라? 요동은 또한 箕씨가 봉해진 땅으로서 漢四郡과 二府의 역사가 분명하다.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비록 복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는 하나, 그 선조는 동일한 종족이었고, 같은 강(江)의 남북에 서로 거주하면서 아무 장애 없이 지냈으니, 어찌 異域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라 하여 서간도가 우리 역사지임을 강조했다. 『石洲遺稿』 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08. 15면.

13) 정연정·천명희, 「고성 이씨 소장 『해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 『어문논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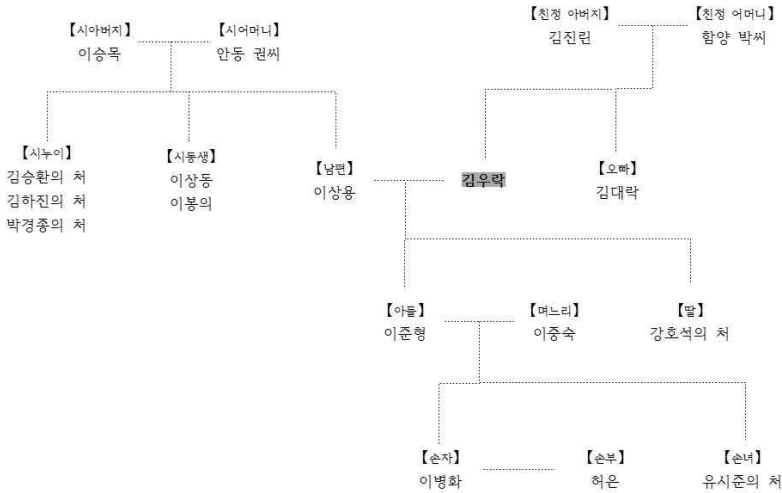


표1 김우락 가계도

이와 함께 화자는 자신을 ‘귀부(貴婦)’, ‘귀녀(貴女)’, ‘수청두목(守廳頭目)’이라 표현한다. 이는 친정과 시가에서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임을 드러낼 뿐 아니라 집안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종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자기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친정어머니를 ‘북당의 깊은 자정(慈情)’이라 묘사하여 부모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동서를 ‘현미(賢美)’, ‘승순공경(承順恭敬)’의 존재로 표현하는 것 역시 인물의 품성과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호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전반부의 인물은 친정과 시가를 구분하여 나열하기보다 화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 속에서 제시되며, 다양한 호칭은 각 인물의 관계적 위치와 화자의 인식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래의 표는 김우락이 가족을 호명하고 표현하는 바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표2 <히도교거사>의 가족 호칭¹⁴⁾

관계	행수	표현
시부모	1~3, 33~42, 54	존당, 의연호신 선학, 선모당당
시동생	3~4, 45, 60	성동, 여룡여호
시누이	3~4, 45, 60	여쥬여옥, 우애있고 흡향
자신	2~49	귀부, 귀녀, 중덕받는 사람, 슈청두목
남편	49, 112, 280	군즈, 주군, 성덕있는 사람
동서	51~52	현미하고 승순공경
친정어머니	17~19	북당의 깊은 자정
아들	13~42	용봉, 우리보화
며느리	57~59	용모는 진옥, 복은 만복
조카	53	인아봉추
딸 / 사위	74~79 82~102	화월, 은령을 단듯 어엿썬, 여옥 / 봉황길인, 옥골선관
손녀 / 손서	74~79 89~102	효경, 선여, 여옥 / 선관, 옥골선관

화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은 자녀와 후손의 혼인을 계기로 다음 세대로 확대된다. 화자는 아들을 ‘용봉(龍鳳)’이라 칭하여 장래를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조카는 ‘금동옥녀(金童玉女)’라 하여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어 며느리는 ‘진옥(眞玉)’, ‘만복(萬福)’이라 하고, 딸은 ‘화월(花月)’, ‘여옥(如玉)’, 사위는 ‘봉황길인(鳳凰吉人)’, ‘옥골선관(玉骨仙官)’이라 호명하여 혼인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 구성원들 또한 조화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준다.

손녀(孫女)와 손서(孫壻)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징은 계속된다. 손녀는 ‘효경(孝敬)’, ‘선여’, ‘여옥’으로, 손서는 ‘선관’, ‘옥골선관’으로 표현되며, 후손들 역시

14) 위의 표에서 행수는 각 인물이 처음 본격적으로 호명되거나 관계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대표 구간을 제시하였다. 다만 가족 서사는 그 관계의 특성상 각 인물이 완전히 분리되어 서술되기 어렵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호명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이 확인되는 행수를 함께 덧붙였다.

뛰어난 인품과 복을 갖춘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작품 전반부의 인물 구성은 혼인을 통해 가족 관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새롭게 형성된 관계 역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호명을 통해 제시된다. 이는 인물을 개별적으로 부각하기보다 가족 관계의 지속과 확장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히도교거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김우락이 친정과 시가를 구분하여 서술하면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족 전체를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제시하는 점이다. 부모와 형제, 시부모와 남편, 자녀와 후손은 각 인물의 관계와 역할을 드러내는 수식과 표현을 통해 형상화된다.

2) 사건 : 공간의 이동

안동은 망명이 현실화되기 이전의 삶과 국가적 위기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먼저 평온했던 일상과 경술국치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남편의 구속을 차례로 제시한다. 특히 남편이 안동에서 학행(學行)과 명망(名望)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밝히고 그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이 서울로 전보를 보내는 등 석방을 위해 힘을 모았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¹⁵⁾ 이는 이상룡의 석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석방 이후에도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국내에서 더 이상 뜻을 펼칠 수 없게 되자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 따라서 안동은 만주 망명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이다.¹⁶⁾

남대문 정거장은 망명이 현실화되는 공간으로 고국을 떠나 만주로 향하는

15) 평일의 학행명망 향국간의 뉘모리리/ 십스리가 뉘누으며 동보들고 면보들고 /서울노 전보 노코 십여일만 버셔느니/ 향국이 모도즐거 가중디경 물너디경/ 잔울디가 어더리나

16) 그후의는 순스들이 한달의 사오츠식/집의오면 문적쫓기 길나가면 길조스의 /속박이 심흔 중의 가련흔손 한국이여(중략) /살임전택 다바리고 월국의스 길이드니/철석단심 구든먹음 뉘르셔 말일년고

17) Philips' Military Map of Manchuria and Korea Compiled from Foreign Staff Maps & British Admiralty Charts, <https://raremaps.com/gallery/detail/61226/philips-military-map-of-manchuria-and-korea-compiled-from-foreign-staff-maps-british-admiralty-c>



그림1 김우락 망명 노정17)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화자는 “정신이 황난, “남은 것이 겁심일세”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망명을 앞둔 불안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는 곧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양련의 평원광야 호호망망(浩浩茫茫)”이라 하여 넓은 들판을 제시하고, 이어 만주로의 기차 여정을 “천고의 없는 호강”이라 묘사한다. 따라서 남대문 정거장은 고국을 떠나는 불안과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함께 제시되는 공간이 된다.

압록강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고국과 만주를 구분하는 경계 공간이다. 화자는 국경을 넘는 순간의 상실감과 비통함을 신체적 감각을 동원한 표현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낸다.¹⁸⁾

반면 압록강을 건넌 이후에는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화자는 “동취잔 아낙의 인후하고 다정함”이라 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묘사한다. 이어 “보신지계 위즈손의 만덕연화 근기차로”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삶과 후손을 위한 다짐을 드러낸다. 이처럼 압록강은 고국과의 이별과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김우락의 이동 노정이다.

harts

위의 지도는 김우락의 만주 망명시기인 1911년 경부선 노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있다.

18) 고국을 회수하니 운영이 아득함에/가삼의 박힌철못 알고 알인막음/ 달과초여 박히여라

표3 김우락의 이동 노정¹⁹⁾

지역	행수	현실 상황	긍정적 전망
안동	111~161행	남편의 구속과 석방	남편의 명망과 지역사회의 지지 확인
남문밖 정거정	162~191행	망명의 불안 및 신문물에 대한 경외와 공포	기차 여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압록강	192~206행	국경통과에 대한 비통함	현지인의 친절에 대한 감사
향도촌	207~235행	고된 마차여정과 노쇠한 김대락과의 만남	가족의 재회와 후손의 탄생에 대한 감사
돌녕거우	236~271행	혹독한 기후와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간의 위로
통화현	272~284행	아들부부의 이별과 장거리 이동	남편에 대한 신뢰와 손녀 위로
영춘원	285~392행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정착생활	집안의 경사와 후손에 대한 당부

향도촌과 돌녕거우는 정착을 위한 이동의 공간이다. 이후 통화현을 차례로 거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간다. 향도촌에서는 마차를 타고 육일 동안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생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오빠 김대락과의 만남과 종손부(從孫婦)의 득남을 함께 제시한다. 이어 돌녕거우에서는 어린 손자를 업고 눈 덮인 산길을 힘겹게 찾아가는 과정과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서술하는 등 망명 이후의 생활상을 꺾진하게 묘사한다.²⁰⁾

통화현에서는 아들 부부와 헤어진 뒤 오류일에 걸쳐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화자는 이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제시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안부를 염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을 함께 배치한다. 이처럼 향도촌에서 통화현에 이르는 공간은 망명 이후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이동 과정에서 겪는 생활의 어려움과 가족의 일상

19) 안동에서 출발하여 손서(孫婿) 유시준을 만난 구담주집, 딸인 강실부부를 만난 봉디(현 의성)는 생략하였다. 이점은 후속 연구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0) 북손서 십이지(러) 지명은 돌녕거우/ 슈간토옥 잇다하니 어린즈손 업고안고/즈란즈손 업서우고 설중의 길어업서/간신이 츠즈가니 두옥(제)실 슈삼간이/ 우리소혈 되단말가 서○ 보고 위로함

이 함께 제시된다.

영춘원은 망명 여정의 목적지로 정착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험난한 이동 끝에 영춘원에 도착하는 과정을 서술한 뒤 거친 자연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차례로 제시하며 만주에서의 망명 생활을 시작한다. 더불어 정착 이후의 일상과 가족들의 방문이 함께 서술되면서 이전의 이동 중심 서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영춘원에서는 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남편 이상룡이 상해 임시 정부의 초대 국무령에 추대되는 경사를 맞이하게 된다.²¹⁾ 영춘원은 남편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후손에 대한 당부²²⁾, 복국에 대한 염원²³⁾이 함께 제시된다. 이는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되는 생활과 미래에 대한 바람을 함께 보여준다. 이처럼 영춘원은 망명 이후의 생활과 가족의 미래가 함께 제시되는 공간으로 만주 망명의 정착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그림 1】에 제시한 노정은 <히도교거사>에 명시된 지명을 표시한 것으로 작품의 서술과 당시의 교통로를 토대로 김우락의 실제 이동 경로를 함께 복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도에는 안동에서 출발하여 추풍령·경성·신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고, 향도촌·돌녕거우·통화현을 지나 영춘원에 이르는 노정을 표시하였다. 이 가운데 추풍령은 마지막으로 하인들과 헤어지고 기차를 타는 곳이다.²⁴⁾

한편 지도에 표시된 ‘삼원보’와 작품에 나타나는 향도촌·돌녕거우·통화현·영춘원의 관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명은 서로 분리된 광역적 이동

21) 빅슈노인 우리쥬군 만세ᄃ 만ᄃ 세야/ 명만천하 호옵시고 만인지상 되옵시며/복국공신 되옵시며 천만세 무궁토록/만고영웅 될지이다

22) 여룡여호 자질들이 나티지심 먹지말고/허다사업 다호여서 나라의는 공신되교/부모의게 영호호라 용호갖흔 사회손서/영화복록 장원호라(중략)뉴란흔 너희종반 세계각국 일흠 두어/일등공신 되여셔라 노모축원 여합호라

23) 남손은 늘그나마 우리는 늘지말고/빅세히로 호다가서 호시기가 닷치거든/ 귀국호시 귀국호시

24) 쥬풍녕 넘어갈적 쥬족갓흔 우리하인/영결노 들일적의 조히가서 잘스라ᄃ(중략)십신이 아득호여 길간우기 어려워라/쥬점의 밤시우고 정거장의 드러가니/위포호고 무서워라 종일을 차를[척]타고/경성남문외에 내려서니

지점이라기보다 모두 삼원보 일대에 속하는 공간으로, 작품에서는 김우락 일행이 이 지역 안에서 거처를 옮기며 정착해 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특히 최종 정착지인 영춘원 역시 삼원보에 위치하며, 신흥무관학교가 자리하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김우락 일행의 망명과 정착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림 1】은 김우락의 전체적인 망명 노정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표 3】은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와 이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3. <히도교거사>의 지향

앞 장에서는 <해도교거사>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의 구성 양상을 중심으로 작품의 전개 방식을 살펴보았다.

<히도교거사>는 망명을 전후하여 서술의 중심이 달라지는 구성을 보인다. 전반부에서는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한 인물의 호명과 관계가 중심이 되어 화자가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질서와 관계망이 드러난다. 반면 후반부에서는 만주 망명과 정착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이 안동을 떠나 남대문 정거장, 압록강, 향도촌, 들녕거우, 통화현, 영춘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을 따라 전개된다. 이러한 이동의 과정은 각 지역에서 마주한 고난과 고향의 현실을 꿰뚫히게 묘사하는 동시에 이를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인식이 교직되어 서술된다.

화자는 각 지역을 거쳐 갈 때마다 두려움과 상실 및 육체적 고생과 가족과의 이별을 겪지만 그러한 경험은 환대와 위로, 후손의 탄생, 미래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삶의 조건으로 전환된다.

<히도교거사>의 이러한 구성은 가족 공동체의 질서와 망명에 대한 김우락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드러낸다. 이에 본장에서는 이러한 구성의 의미가 작

품 속에서 어떠한 지향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화로운 가족 질서의 형상화

<희도교거사>의 전반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가족 관계가 조화로운 가족 질서로 형상화된다.

김우락은 <희도교거사>의 도입부에서 친정에서의 성장과정 및 시댁에서의 삶을 회고한다. 그는 어린 시절 “호화로 싱장”하여 열아홉에 혼인하고, 시부모의 “성훈덕택”을 입어 안정된 삶을 이루었다고 회고한다. 이어 남편과의 화목한 관계, 스물두 살에 아들을 낳아 “존당의 영효”가 되었다는 점을 차례대로 제시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개인의 성취보다 부모·남편·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관계 속에서 의미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우락은 자신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묘사한다. ‘존당(尊堂)의 영효(榮孝)’가 되고 “물니에 디경(大慶)”이 되었다는 표현은 아들을 출산한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가문 전체의 기쁨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몸이 여즈라도 슈청두목(守廳頭目) 아니런가”는 집안의 여러 일을 총괄하며 가문을 운영하는 중부로서의 위치를 의미한다. 김우락은 자신을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은 자녀였고, 혼인 이후에는 화목한 아내이자 효성스러운 며느리였으며, 자녀를 출산한 뒤에는 가문의 계승을 담당하는 어머니로 설명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이후 망명 과정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김윤희는 이러한 김우락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남편 이상룡의 곁에서 ‘가족 공동체의 안위와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하였다.²⁵⁾

이 몸이 즈소시로 호화로 싱장호여
 십구의 우귀호니 흥·존당 성훈덕택
 일신이 반석이오

25) 김윤희(2026), 위 논문, 167.

쌍궤 혼 어린 동기 성동이오 옥여로다
 인인으로 화(목)하고 니십이세 싱남흔니
 존당의 영효 되고 물니에 더경이라
 이몸이 여즈라도 슈청두목 아니런가
 물니에 연긔이서 별턱을 청장흔여
 압한님 (뒤흔님의) 형식도 빗날시고
 간디마다 반겨흔고 사람마다 흠양흔니

한편 김우락은 남편을 ‘성덕있는 사람’, 자신을 ‘중대 받는 존재’로 호명하며 부부 관계를 애정과 존중의 관계로 형상화한다.²⁶⁾ 이러한 서술은 부부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질서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압한님(뒤한님)”은 집안의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²⁷⁾ 이들의 “형식이 빗날시고”, “간디마다 반겨흔고 사람마다 흠양(欽仰)흔니”라는 표현은 집안 구성원 모두가 품격과 덕망을 갖춘 존재로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가문 전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공동체였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우락은 양가 부모에 대해 깊은 공경을 드러내면서도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한다. 친정부모는 “김흔자정(慈情)”이라 하여 자애롭고 깊은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제시된다. 이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 따듯한 보살핌과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반면 시부모는 “의연흔신 선학”으로 표현한다. 이는 흔들림 없는 품성과 덕망을 갖춘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연하다’는 위엄과 절개를, ‘선학(仙鶴)’은 고결한 인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부모가 가문의 질서를 이끄는 도덕적 권위의 중심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김우락은 친정부모에게는 자애와 사랑을, 시부모에게서는 품격

26) 우호로는 사랑받고 /균즈의게 중디마다 세월이 낙이로다

27) 정연정, 천명희, 위 논문, 26.

‘앞(先)+한(大)+님, 뒤(後)+한(大)+님’으로 가문의 선후 항렬의 친지들을 의미한다.

과 덕망을 부각함으로써 양가 부모를 각기 다른 관계성과 가치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친정과 시택을 구별하여 높이고 낮추기보다 각각의 위치에 맞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우락은 친정과 시택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도 가족 질서가 예법(禮法)을 통해 유지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친정을 떠날 때는 먼저 의복을 갖추고 행장을 정리한 뒤, “북당의 물러나와 형제동반 상별하고”라 하여 떠나는 절차를 차례대로 기록한다. 먼저 어머니께 하직의 예를 올리고 물러난 뒤 형제들과 작별하는 순서는 가족 내부의 위계가 예를 통해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우락은 이러한 과정을 특별한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서술하는데, 이는 예에 따른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와도조코 가도조희 만심쾌락 흥게고야
 묘몇달을 못이셔 〰 오라명영 나리시니
 아즈의 고은의복 다시고쳐 치장하고
 행장을 성비하니 양죽집 귀구보소
 츠등업시 훌웅흠에 북당의 물러나와
 형제동반 상별하고 사통오달 너른길의
 오전을 달여가니 맛들지를 가단말가(중략)
 쥬렴을 놓히걸고 멀이셔 바라보니
 강손은 그림이요 제턱도 훌웅흐다
 물가의 다다르니 건장흔 넷하인이
 공순이 압희와셔 공슈하고 흥논말이
 영감임 분부나려 소인들이 등더호오
 억기에 놓히메고 집가지 드리가셔
 즈의 나려서 〰 조당의 비레하고
 공순이 나아가니 당상의 안즌존당
 의연호신 선학일쇠

시택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질서는 그대로 이어진다. 시택에서는 시부(媿父)의 분부에 따라 하인들이 일정한 거리까지 나와 김우락을 맞이한다. 이어 친정에서 매고 오던 가마를 시택의 하인들이 넘겨받아 집안까지 모셔 들이고, 김우락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조당(祖堂)에 배례(拜禮)를 올린다. 이 또한 친정에서 시택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일정한 예법과 격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부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머느리를 맞이하는 장면은 김우락 개인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머느리를 예를 갖추어 맞이하는 시택의 가풍을 보여준다.

친정에서는 부모와 형제 사이의 예가 지켜지고 시택에서는 시부모를 중심으로 한 환대와 예우가 이어진다. 김우락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대비하지 않고 양가 모두가 예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서 속에서 자신 역시 존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친정과 시택 양가에서 조화로운 가족 질서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들이 (현)미호여 존당의 영효호고
 자귀의게 승순공경 금동옥여 탄싱호니
 쌍궤 어린질아 인아봉쥬 기절호다(중략)
 스친지도 차죽업고 어린동귀 우익호니
 스궤의 흡호향네 스람마다 양시호고
 우리맛음 쾌호도다

김우락은 시가 구성원들을 각자의 덕목과 관계의 조화 속에서 호명한다. 동서들은 “현미(賢美)”한 존재로 묘사되며, 존당에게는 “영효(榮孝)”하고 김우락 자신에게는 “승순공경(承順恭敬)”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여기서 동서의 덕목은 윗세대를 효성으로 섬기고 같은 세대에서도 연장자를 공경하며 예를 지키는 관계적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

또한 동서들이 낳은 자녀들을 “금동옥여(金童玉女)”, “인아봉추(麟兒鳳雛)”로 호명하는 것은 집안의 덕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우락은 조카들을 귀하고 빼어난 존재로 표현한다. 이는 동서들의 현숙함과 공경의 태도가 자녀세대의 번성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스 친지도 차촉업고”라는 표현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문 내부의 화목이 예에 기반한 균형 속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누이와 시동생으로 보이는 “어린 동기”들에 대한 서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우락은 이들이 서로 ‘우익히다’고 말하며, 그 결과 “스 의 흡호”하여 “스람마다 양시”한다고 한다. 이는 가족 내부의 화목이 사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중을 불러오는 사회적 가치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슬하의 어린숙질 선아갓치 길너니니
 하나흔 화월이오 하나흔 효경일쇠
 선여가 하강인가 말마다 향기롭고
 일마다 아람다와 슬하의 화초체로
 칩을바도 갓치보고 슈를봐도 갓치노니
 은령을 단듯함에 어엿썬 우리딸이
 이팔이 되단말가
 삼강오륜 읊흔법을 니흔즈 폐할손나
 혼인을 광구하니 강씨문중 디종가의
 봉황길인 쌍을일위 신행가 스오삭을
 반격(으로) 지니다가 팔월중추 호시절의
 쌍형(으로) 귀령부모 싯득히 귀하여타
 가절의 빗들둑고 가중화식 빗나거다
 사돈니 성덕보소 갈적의 파련아히
 올적의 윤택함에 부모마암 깃부도다
 어엿분 손너나이 십늑이 되단 말가

구혼을 날이흐니 하회짜 디명가의
 가세도 조커니와 반벌도 빗날시고
 웅낭의 거동보소
 너외비향 상적혀여 선관ियो 옥여로다

김우락은 딸과 손녀를 모두 자신의 슬하에서 정성껏 기른 소중한 여성으로 제시한다. 화자는 두 사람을 각각 “화월”과 “효경”에 비유하고, “선여가 하강인가”라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자질과 아름다움을 갖춘 존재로 형상화한다. 이어 “칙을바도 갖치보고 슈를 바도 갖치노니”라는 표현은 딸과 손녀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손녀 역시 딸과 다르지 않은 애정과 기대를 받고 성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인물의 혼인을 서술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딸의 혼인은 모성의 아쉬움보다 예법과 가문의 질서를 앞세워 서술된다. “삼강오륜 놉혼법을 닮은지 폐할손녀”라는 표현은 딸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혼인을 통해 예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어 사위는 “강씨문중 대종가”의 인물로 제시되고, 혼인은 “봉황길인 쌍”을 이루는 일로 묘사된다. 여기서 딸의 혼인은 명문가와의 결합을 통해 가문의 품격을 지속하는 과정으로 의미화 된다. 신행 이후 다시 돌아온 딸이 “갈적의 파련아히”에서 “올적의 윤택”한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서술은 사돈택의 성덕과 혼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기쁨은 딸이 혼인 이후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여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녀의 혼인은 딸과는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손녀의 경우에는 “십육”이라는 혼인 적령과 “구혼을 날이” 하는 과정, 그리고 “하회짜 디명가”라는 혼처의 위상이 앞세워진다. 곧 손녀는 김우락의 슬하에서 길러진 사랑스러운 존재 이면서도, 다음 세대의 혼인을 통해 가문의 관계망을 확장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사위에 대한 묘사 역시 딸의 남편은 ‘강씨문중 대종가’와 ‘봉황길인 쌍’이라

는 조화로운 결합이 강조되는 반면, 손녀의 혼처는 ‘가세(家勢)’와 ‘반벌(班閥)’이 함께 빛나는 명문가로 제시된다.

이처럼 김우락은 딸과 손녀를 모두 동일한 애정 속에서 양육한 귀한 존재로 호명하면서도 딸에게서는 혼인을 통한 여성의 성숙을, 손녀에게서는 혼인을 통한 가문의 계승과 확대를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우락은 자신을 비롯하여 부모, 시부모, 동서, 시누이와 시동생, 자녀와 손녀에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을 각 인물의 덕성과 역할을 드러내는 호칭과 수식어를 통해 호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 부부의 화목, 형제간의 우애, 동서 간의 공경, 자녀와 후손의 계승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가족 질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각각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며 그 관계는 예와 공경, 배려와 화목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이처럼 <히도교거사>에 나타난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삶의 질서로 형상화된다. 김우락은 망명 과정에서도 가족이 함께 하는 삶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며, 딸과 손녀를 데려오지 못한 일을 자책하고²⁸⁾ 아들 내외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받아들인다.²⁹⁾ 이러한 모습은 가족 공동체의 완전성을 삶의 기본 질서로 이해한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³⁰⁾ 더욱이 이상룡이『가족단서』에서 가족을 사회와 국가의 근본으로 이해한 점을 고려하면,³¹⁾ <히도교거사>에 나타나는 가족의 화목과 결속은 개인적인 정서를 넘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28) 저희숙질 바려두고 월국할줄 뉘알손니/심중의 병이되니 주야로 도통이나/저희었지 알깃 스라 슬푸다 니일이야

29) 슬푸다 니일이야 말이끼지 술안중의 /부조형제 각이되니 우습고 괴막혀라

30)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56~357쪽.

만주 망명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부부와 가족을 함께 동반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서중석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 사회의 강한 가족 결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31) 이에 대한 연구는: 『石洲遺稿』上,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08, 564면. : 김정미, 「李相龍의 국권회복운동론」, 『한국 근현대사 연구』 11,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236.

2) 각박한 현실을 대하는 긍정적 인식

<히도교거사>는 만주 망명의 열악한 현실을 꿰뚫어보게 묘사하면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긍정적 인식을 함께 보여준다. 이는 망명 현실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삶을 견뎌낼 힘을, 고국의 가족과 친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전하는 효과를 지닌다.

<히도교거사>는 남편의 투옥과 국권 상실의 정세, 가족과의 이별, 낯선 공간에서의 불안, 압록강 도하의 참담함, 정착 이후의 병고와 같은 현실의 위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김우락은 남대문 정거장과 신의주에서 느낀 공포와 혼란, 만주 이주 과정의 피로와 곤궁을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망명자의 삶이 처한 불안정한 조건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가족의 재회에서 오는 안도, 황량한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 아이의 탄생과 생활의 지속 같은 일상적 장면들을 함께 포착하며 삶을 이어갈 가능성을 끝내 놓지 않는다. 이는 현실의 위기와 결핍을 삶의 지속과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해 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석주 이상룡은 대한협회(大韓協會) 안동지회장을 하다가 1909년 2월 ‘비도(匪徒)와 연락하였다’는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구인되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탄원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일제의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경숙국치가 되자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길에 오른다.

괴유년 춘이월의 모진것들 주의보소
저의죽을 일인가바 호언으로 청장하니
주의(훈) 아제마는 모면홀길 이슬손가
인마츄려 압셔우고 형제숙질 뒤회피셔
경무청 문압가지 더욱으로 구박하니
천지가 혼혹인가 천지(만고) 원일인고
저의들 무슨법이 부즈형제 못보거러
경무청 문하늬이 말이저력 되단말가
형제숙질 통곡하니 획칙이 무어신고

소문도 아득더니 천뢰가 유의하고
 평일의 학형명망 향국간의 뉘모르리
 십스리가 뉘누으며 동보들고 면보들고
 서울노 전보노코 십여일만 버셔느니
 향국이 모도즐겨 가중디경 물니디경
 견울터가 어더러나

김우락은 국사가 점점 위태로워지자 남편의 애국지심이 더욱 커져 갔다고 한다. 이상룡은 협회 활동과 회장직을 맡으며 공적인 활동에 나섰고, 김우락은 이를 마음속으로는 염려가 되었으나 “디스의 아여즈가 말흐미 불가호여” 직접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이는 김우락이 남편의 활동이 우려가 되긴 하나, 자신이 개입할 수 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 두려움은 기유년 춘이월에 현실화된다. 일본이 이상룡에게 출두를 명하자, 그는 형제와 자식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으려 혼자 마차를 타고 먼저 길을 나섰고 형제와 숙질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일본은 이상룡을 감옥에 가두고 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불안과 비통함 속에서 통곡하였으며, 김우락은 이 참담한 상황을 “천지가 혼흑”하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상룡은 평소의 학행과 명망으로 향리와 나라 안에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십사리 사람들이 나서서 동보와 면보를 들고 서울로 전보를 보내 십여일 만에 풀려난다. 김우락은 이를 집안의 큰 경사이자 마을 전체의 경사로 받아들이며, 이상룡의 석방을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가문과 향국이 함께 기뻐한 사건으로 서술한다.

하늘과 땅이 ‘혼흑(昏黑)’하다는 것은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김우락은 남편 개인의 억울함에 만 시선을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천진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상룡의 학행을

32) 요란헌 이세상이 국스가 점·위티 /쥬군의 이국지심 업친물을 돌일다시 /협회도 혼다호고 회[도 혼다 호고]회장도 혼다호니/먹음의 우구호나 디스의 아여즈가/말흐미 불가호여 기구는 아니호나/ 십년에 두렵더니

민고, 십사리와 먼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 그의 석방을 위해 힘을 모았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김우락은 절망의 정서를 끝까지 밀고 가지 않고 이를 함께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어 제시함으로써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상룡의 구속과 풀려남은 결국 만주 망명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쥬점의 밤식우고 정거장의 드러가니
 위포하고 무서워라
 종일을 차를[차]타고 경성남문외에 내려서니
 충궤 혼 화광중의 정신이 황난하여
 아모마암 업서지고 남은거시 겁심일쇠
 서울서 밤식우고 남문밖 정거장의 나가서니(중략)
 장광을 알듯하데 변화불측 이조화가
 웅장하고 위포하고 괴궤하고 괴궤하여
 형용할줄 모랄네라 양련의 평원광야
 호궤망궤 하계고야
 심규의 어린녀즈 천고의 업느호강
 쫓나게 한다마는 일련의 향순회포
 여광여취 이니모음 [여광여취 하계고야] 만스모렘 하계고야
 슬푸다 우리나라 이조흔 호강손을
 헌신갓치 바리고서 괴어터로 가즌말고
 통곡이야 천운이여
 강손아 잘잇거라 다시와서 반기리라

김우락은 처음 접한 기차와 정거장의 풍경에 대해 “위포하고 무서워라”라고 하며 낯섦과 두려움을 나타낸다. 종일 기차를 타고 경성 남문에 도착한 뒤에 총총한 불빛이 가득한 풍경을 마주하자, “정신이 황난하여 아모마암 업서지고 / 남은거시 겁심일쇠”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한다. 이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웅장하고 위포하고 괴궤하고 괴궤하여”라고

한다. 이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광경을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세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두려움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김우락은 기차 양편의 평원과 광야를 바라보며 이를 “호호망망”하다고 묘사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심규의 어린 녀즈”가 이러한 광경을 직접 경험하는 일을 “천고의 업난호강”이라고 한다. 망명길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경험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은 곧 조국을 떠나는 현실에 대한 비통함으로 이어진다. 김우락은 “슬푸다 우리나라”이라 탄식하며, “이조흔 호강손을 / 헌신갓치 바리고서 괴어티로 가즌말고”라고 통곡한다. 조국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현실 앞에서 “강손아 잘잇거라”라고 작별을 고하지만, 그 끝을 “다시와서 반기리라”로 맺으며 귀환의 희망을 남긴다. 이는 조국을 떠나는 비극적 현실을 절망으로 종결하지 않고, 미래의 귀환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의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인들은 모두 떠나고 일본인만 남게 되자 김우락은 이를 “산ᄃᆞ 호고 흥득흥여”라고 표현하며 낮은 공간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드러낸다. 마침내 신의주에 도착하지만 사방에는 불빛만 가득하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아들은 길을 안내하고 조카는 몸을 부축하지만, 김우락은 “정신니 황느”하여 주변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라고 혼란스러운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곧 먼저 신의주에 도착해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이 자야 사랏고나”라고 말하며 안도감을 느낀다.³³⁾

이처럼 <히도고거사>에서는 불안과 위협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김우락은 새로운 경험, 가족과의 재회, 일상의

33) 밤든후 스오경의 한인은 다나가고/일인만 나맛스니 산ᄃᆞ 호고 흥득흥여/ 기다리기 지리터니 저근닷 신의주의/ 내려서니 화광은 흥ᄃᆞ 흥다 왕ᄃᆞ 이/거문밧치 양목이 어뜻기니 어더를 향춘말고/아즈난 인도호고 질아는 부익흥여/정신니 황느터니 어더서 뚫던소리/먼저오신 우리쥬군 계와서 기다리니/이즌야 사랏고나

회복과 같은 계기를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서의 전환은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구성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압록강을 건어서니
 철석간장 아니어든 감창지회 어이할고
 고국을 회슈하니 운영이 아득함에
 가삼의 박힌철못 알이고 알인므음
 달과차여 박히여라(중략)
 동취준 늘근안덕 인후하고 다정하여
 육강을 즈로쥬니 말이지지 이런사름
 어이하여 쉬웁넌고 낙지를 츠즈가며

압록강을 도하하는 순간의 심정을 김우락은 ‘철석같은 심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어이할고’라고 토로한다. 고국을 돌아보니 “가삼에 박힌철못 알이고 알인므음”이 ‘달과 차여 박힌다’고 하여, 망국과 이산의 고통을 극단적인 신체 감각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대조적으로 김우락은 숙소인 동취잔의 늙은 안택이 인후(仁厚)하고 다정하였다고 묘사하며, 만리 객지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향하는 곳을 ‘낙지(樂地)를 찾아가는 길’로 표현함으로써 망명을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한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망명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가슴에 철못이 박힌 듯한 심정으로 압록강을 건넜지만 그 아픔의 끝을 ‘낙지’로 전망하는 것은 절망을 그대로 고착시키지 않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을 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위안의 메시지인 동시에, 극심한 상실과 불안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고 현실을 견뎌내려는 자기 다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마차를 잡아타고 보신지계 위즈손의

만디영화 근기초로 향도촌을 향히올적
 하르오고 잇홀오고 오륙일을 연히오니
 길의셔 고상이야 말홀게 업다마논
 뉘가청히 오논길가 혼히여 무의히고
 원망홀디 전혀업니
 하늘이 둘너던지 사롬이 마쳤던지
 각기소장 혼일이니 뉘타슬 혼존말고(중략)
 설중의 길을촉즈 간신이 짜라가서
 집가의 드러서니 절부들이 마조나와
 업억히 반긴 후의 실중의 드러가니
 벅슈죄영 우리거ᄃᆞᆫ 업ᄃᆞᆫ 혼신 기력이오
 위티혼신 신관이라 가이업고 통곡이야
 그러도 경스이셔 동손부 성남지경
 장니영화 기초로다

향도촌은 오빠인 백하(白下) 김대락(金大洛, 1845~1914)이 거주하는 곳이다. 향도촌을 향하는 길은 마차를 타고도 오륙일을 가야 하는 먼 노정이었다. 김우락은 그 과정에서 겪는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누구의 청(請)을 받아 억지로 떠나는 길이 아니므로 원망할 일은 전혀 없다고 한다. 이는 향도촌으로의 이동을 자손을 위한 ‘보신지계(保身之計)’이자 ‘만대영화(榮華)’의 근기(根基)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도촌에 도착하여 오빠 김대락을 만난 순간, 김우락은 현실의 참담함에 대한 충격을 숨기지 않는다. 백발이 된 오빠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통곡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어 종손부(從孫婦)가 아들을 낳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장니영화의 기초”라고 한다. 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가문의 계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아를 압서우고 작지를 의지히여

회쉴첨망 몇번인고 보ᄃ마다 간신히니
 엇지하여 가즌말고 그러도 눈이이서
 사방을 상완히니 볼스록 광활하다
 침ᄃ히 싸힌손이 험중치 아니하고
 그림으로 셔렸스니 혼인이 드러와서
 명인이 나리로다
 우마쑥과 더쑥쑥을 더럽다 하지마오
 아조문명 하여시면 이철이 만쑥쑥이
 혼인기세 도라올가
 글의 일너스디 지청지쑥 무이로니
 텃ᄃ흔 그가온디 가ᄃ의 명인나고
 허다사업 다히시고 북국명인 되옵시소
 역ᄃ다 우리한국 인결은 (라)지령이라
 사롭마다 영웅준걸 망국인중 불상하다
 심중의 헤아리며 하르오고 오전오니
 이곳의 왓단말가
 슬푸다 나의 접담지논 어디가 좇즌말고(중략)
 실중의 드러가니 향니가 가득하며
 그아히 거동보니 괴상은 용봉이요
 골격은 형옥일네 지정간 이런경스
 든ᄃ흔중 치하롭다 고상을 밥을삼고
 염반을 감심하여 만디영화 근긔히시

영춘원은 망명의 최종 목적지였으나, 가족 모두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김우락과 이상룡은 영춘원으로 향하고, 아들 내외는 통화현에 남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영춘원으로 향하는 길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김우락은 조카를 앞세우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눈 쌓인 산길을 힘겹게 걸어가며, 통화현에 남겨 둔 아들 내외와 손녀가 떠올라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본다. 이는 아들내외와의 이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우락은 이러한 아픔만을 부각하지 않는다. 험겨운 발걸음 속에서 도 사방을 둘러보며 광활한 대지와 첩첩이 둘러선 산세가 “험중지 아니하고 그림으로 셔렸”으니 ‘한인이 들어와서 명인이 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는 만주의 척박한 생활환경마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우마(牛馬)와 돼지의 분노가 널린 환경을 더럽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땅이 이미 문명화된 곳이었다면 “이철이 만주싸이” 한인에게 돌아왔겠느냐고 한다. 이는 척박한 자연환경을 오히려 한인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어지는 “가³⁴의 명이나고 허다사업 다희시고/ 북국명인 되옵시소”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훌륭한 인재가 성장하여 장차 나라를 회복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현재의 척박한 현실을 결핍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으로 전환하는 김우락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영춘원에 도착한 직후 김우락이 가장 먼저 토로하는 감정은 슬픔이다. 앞선 여정에서는 험난한 산길과 열악한 주거환경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지 않았던 화자가, 영춘원에 이르러서는 “슬푸다”라고 말하며 내면의 정서를 드러낸다.³⁴⁾ 이는 만주 망명이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화현에 남겨 둔 아들 내외와 손녀뿐 아니라 고향의 형제자매와 친족 모두와 떨어져 낯선 공간에 홀로 정착해야 하는 처지가 실감나면서, 화자는 깊은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은 자신들을 부모처럼 섬기는 시고종의 집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마주하는 순간 다른 정조로 전환된다. 김우락은 향내 가득한 방 안에서 아이를 보고 “지정간 이런 경스”라 하며, “든³⁵ 혼중 치하롭다”고 기쁨을 표한다. 이어 “고상을 밥을 삼고/ 염반을 감심하여 만덕영화 근귀히시”라고 한 것은, 고난을 견디며 이어 온 삶이 마침내 후손의 번성과 가문의 지속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춘원은 김우락에게 정서적 위안을 얻기 어려운 낯선 망명지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34) 슬푸다 나의 접담지느/어더가 좇존말고

고 미래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다시 의미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본고는 김우락의 <히도교거사>를 2중심으로 작품의 구성과 지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히도교거사>는 망명 이전과 이후라는 삶의 전환을 중심축으로 혼인과 출산, 가족의 일상, 국가적 위기와 망명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개인의 생애와 공동체의 역사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망명 여정에서 마주한 추위와 굶주림, 이별과 고립 등 열악한 현실을 구체적이고 썩진하게 묘사하는 한편 그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과 생명의 탄생, 가족과 후손의 번영에 대한 기대를 발견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현실의 고난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서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거쳐 가는 각각의 공간마다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교직된다. 이는 망명 여정을 절망의 서사로 귀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속에서 형상화한다.

또한 김우락은 자신의 글을 “내 평생 경력으로 기록하여 너희들 보이고저” 지었다고 밝힘으로써, 이 작품이 개인의 감회를 적은 일기나 독백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자를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작품 전반에는 후손뿐만 아니라 고향에 남겨진 자매와 가문의 여성들, 문중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독자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독자 의식은 현실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는 남겨진 이들에게는 안심과 위안을, 함께 망명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현실을 견뎌낼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서술 방식으로 구현된다.³⁵⁾ 따라서 <히도교거사>는 고난을

35) 아히들이 인편이 급하여 축하의 안흔간지 안부도 못한다 사라잇는 줄이느 아리니 여기 와서 한 한심슈란 호여서 기스 여럿을 지려 해도 교계스는 내 평생 경력으로 기록호여 너희들 보이고저우는 너모만하 가지고 간동 모른다 미는 모도 그릇 셋느니라 보고 부대부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이어 가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며 공동체를 재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부정적인 현실과 긍정적인 전망이 교직되는 구성을 보인다.

<히도교거사>에서 가족은 혈연과 혼인으로 형성된 친족 집단을 넘어 함께 생활하고 고난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야 하는 공동체로 인식된다. 김우락은 딸인 강실이와 손녀인 유실이를 고국에 남겨둔 일을 거듭 자책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화현에서는 아들 내외와도 이별하게 되자 이를 깊이 탄식한다. 이는 가족의 헤어짐을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히도교거사>에서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정착하며 후손을 낳고 기르는 일은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지속해 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히도교거사>에서 ‘관계’는 망명 이전의 삶을 구성하고 설명하는 질서인 동시에, 망명 이후에는 흩어지고 단절된 삶을 다시 연결하여 가족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회고에서 공간의 이동과 사건의 연쇄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질서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논의는 김우락의 가사 창작에 나타난 관계망적 성격을 ‘관계의 미학’으로 설명한 선행논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분석의 대상과 방향에서 차이를 갖는다. 선행연구가 자매를 대상으로 한 <간운사>, 집안의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한 <정화가>, 손녀를 대상으로 한 <조손별서> 등 김우락이 구체적인 상대를 향해 가사를 창작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책임과 돌봄을 통해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학적 실천으로 규명하였다면, 본고는 <히도교거사> 한 작품을 중심으로 관계의 질서를 통해 김우락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망명을 ‘제약된 환경’으로 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관계망이 가족공동체의 존속과 새로운 생활세계의 형성을 가능하

연천 너 형의게 보느여라 불각체촉하니 간단이 급급히 두어줄 민드로 소회도 십일도 모르고 그민쑈[권영철 본 <간운사>]

게 하는 원리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 규방가사의 여성 화자가 자신의 정서와 한(恨), 이별의 슬픔을 중심으로 삶을 서술하였다면, 김우락은 고난 속에서도 사당에 절을 올리고 가족을 돌보며, 이동을 준비하고, 후손을 걱정한다. 김우락의 관심은 감정의 표출보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히도교거사>는 여성을 고난을 견디는 존재로만 형상화하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새로운 삶을 조직하는 실천의 주체로 제시한다.

<히도교거사>는 경술국치와 망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그 서술의 중심에는 독립운동의 과정이나 정치적 활동보다 한 여성의 삶과 가족의 일상이 놓여 있다. 이는 국가적 위기를 역사 서사로만 다루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감당된 현실로 기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히도교거사>는 김우락을 독립운동가의 부인이나 망명에 동행한 여성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게 한다. 그는 자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망명의 경험을 스스로 선택하고 배열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 작가이다. 작품 속 인물의 호명 방식과 사건의 구성, 현실에 대한 인식, 후손을 향한 당부는 모두 김우락 자신의 문학적 선택의 결과이다.

본고는 <히도교거사>를 통해 김우락의 삶에 나타난 관계의 의미와 삶의 지향을 살펴보았다. 다만 <히도교거사>는 김우락이 남긴 가사 작품 가운데 한 편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한 특징을 김우락의 문학세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石洲遺稿』 상,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08. 1~761.
- 『石洲遺稿』 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08. 3~ 618.
- 서종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25, 23~ 457.
- 뵘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上, 최종철 역, 새물결, 2006.
-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25, 10~256.
- 김윤희, 「안동 사람들의 망명 애환을 담은 가사歌辭 - 김우락의 <해도교거사>, <정화가>, <간운사> 안동의 지역성을 확장하다」, 『안동학 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UCI : I410-ECN-0101-2021-911-001571579)
- _____,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의 새로운 이본(異本) 자료 소개」, 『우리文學研究』 67, 우리문화회, 2020, 29~64.
- _____,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海島僑居辭)>와 <분통가(憤痛歌)>에 대한 비교 고찰-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와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77~103.
- _____, 「김우락의 만주망명 가사에 보이는 여성의 자의식과 관계 지향적 미학」, 『우리문학연구』 89, 우리문화회, 2026, 165~193.
(UCI : I410-151-26-02-096098676)
- 고순희,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담당층 혁신유립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2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37~68.
(UCI :I410-ECN-0102-2012-810-002479495)
- 김정미, 「李相龍의 국권회복운동론」, 『한국 근현대사 연구』 11,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223~247.
- 백순철, 「'가족'과 '지역'으로 읽는 내방가사의 독법」, 『한국시가문화연구』 54,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5~29.
(UCI :I410-151-25-02-091677458)
- 성호경·서해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도교거』> · <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46, 한국시가학회, 2019, 165~205.
(UCI : I410-ECN-0102-2019-800-001771074)

정연정, 천명희, 「고성 이씨 소장 『해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 『어문논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9~32.
(UCI :I410-ECN-0102-2017-810-000359585)

| Abstract |

A Study on the Early 20th-Century Women's Gasa—〈*Haedogyogosa*〉

Park, Young-joo

Ewha Womans Univ. Ph.D.

This study examines the compositional features and thematic orientation of Kim U-rak's (金宇洛, 1854 - 1933) *Haedo Gyogosa* (〈학도교거사〉) and seeks to elucidate its significance in Korean literary history. *Haedo Gyogosa* is a long-form gasa that brings Kim U-rak's upbringing, marriage, family life, and exile to Manchuria together within a single narrative.

The narrative of *Haedo Gyogosa* undergoes a marked transition at the point of exile. The first half of the work focuses on individua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ereas the second half centers on spatial movement and events. By portraying her family members through distinct forms of address and descriptive epithets, Kim represents the family not simply as a group bound by blood but as a relational order in which ritual propriety and reverence, affection and care, and responsibility and succession are put into practice.

Kim provides a realistic account of the grief of leaving her homeland, the hardships of long-distance travel, cold and illness, separation from her family, and the harsh conditions of settlement.

Yet she does not allow these hardships to culminate in a narrative of despair. She records the hospitality extended by those she encounters in unfamiliar places, finds consolation in the birth of the jongson, the grandson who would carry on the main family line, and in the future of her descendants,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ustaining life. The structure in which painful realities intersect with an affirmative outlook reveals Kim's understanding of exile as a process of reorganizing and carrying forward the lives of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The significance of *Haedo Gyogeosa* in Korean literary history lies in its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event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and the subsequent exile to Manchuria through Kim U-rak's own life and perspective. The work integrates a woman's life, the history of a family, a national crisis, and the continuity of a community within a single narrative, representing exile as a process of sustaining life while preserving a relational order.

Keywords : Kim U-rak, Haedo Gyogeosa, women's gasa, family community, exile